

## NEWS

2025년 6월 10일 화요일

## 전남도, 외국인 안심병원 운영... 의료 사각 해소

여름철 위험요소 신고하세요  
시, 8월까지 안전신문고앱 활용

광주시는 오는 8월까지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호우·태풍·폭염사고 등 '여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호우·태풍, 산사태 위험, 폭염, 물놀이 안전 등 여름철에 발생하기 쉬운 자연재난과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운영된다.

호우·태풍 관련 위험 사항은 '빗물받이 막힘' '옹벽 붕괴·도로 패임' '강풍 위험' '감전사고 위험' 등이다. 또 집중호우로 인한 '비탈면·주책가 등 토사 유출' '위험구역 관리 미흡' 등을 발견해 신고하면 된다.

폭염은 그늘막·무더위 쉼터·음수대 등 폭염 저감 시설 파손, 작업장 안전관리 미흡 등이다. 물놀이 안전 관련 위험 사항은 인명구조함 등 안전시설 미비, 출입·관리 미흡, 안전요원 미배치, 물놀이 시설 파손 등도 신고 대상이다.

안전신문고앱은 재난·안전 위험 요소를 사진·동영상으로 촬영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쿠팡배달의 '집중신고' 기능을 활용하면 된다.

이부호 안전정책관은 "올해 장마철 집중호우 시기는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빨라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침수사고 예방을 위해 주변 빗물받이 덮개, 쓰레기, 흙 등으로 막혀 있을 경우 사전에 신고하면 호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도의사회 협력 이달부터...진료비 30% 감면  
통합지원 콜센터 연계...6개 언어 통역 제공

전남도는 외국인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안정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남도 외국인 안심병원'을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외국인주민 증가율은 18.5%로 전국 1위를 기록,

외국인주민의 의료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주민의 경우 병원비 부담이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크고, 언어소통의 어려움으로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전남도의사회와 협력해 6월부터 외국인 안심병원을 지정하고, 지정받은 병원은 건강보험 미가입 외국인에게 진료비의 약 30%를 감면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 줄 계획이다. 전남 외국인 통합지원 콜센터와 연계해 의료 통역서비스도 할 예정이다.

통역 서비스는 한국어를 포함해 베트남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네팔어, 인도네시아어 등 총 6개 언어로 제공되며, 7월에

는 태국어, 우즈베크어, 스리랑카어, 필리핀어 등 9개 언어로 확대할 예정이다.

안심병원 지정은 바라는 의료기관은 전남도의사회 의료봉사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남도는 지정 기준 여부를 확인한 뒤 지정서를 발급하고, 외국인 환자 통번역 지원 등 사업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전남도의사회 의료봉사단은 진료비 감면 여부 확인 등 실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오는 18일 '전남 외국인주민

의료지원 실무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해 안심병원 지정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외국인 주민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관·학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이번 안심병원 운영을 통해 외국인 주민이 보다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계속해서 의료지원 협력체계를 발전시켜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李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 사건 연기

서울고법, 18일 예정 재판기일 '추후 지정'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고법은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법원 실무상 '추정'이라고 표현한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서울고법이 이날 기일 변경의 사유로 헌법 84조를 명시한 것을 고려하면, 해당 재판부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이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 재임 기간 해당 파기환송심 재판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결정 이후 이 대통령의 다른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역시 유사한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1면 '李정부 2차추경'서 계속

또 "공공배달앱은 광주가 앞장서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다"면서 "거대 배달앱의 횡포로부터 소상공인을 지키는 1차 방어선인 공공배달앱을 지원하는 일은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부족한 만큼 이번 추경에서 국비 11억원을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대형 배달앱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는 '배달중개수수료 상한제'에 대한 조속한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며 "내일 국회에서 배달중개수수료 상한제의 조속 입법을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국회에서 13조8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안이 통과된 데 이어 '20조원+α' 규모의 2차 추경 편성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美 토니상 6관왕 돌풍

한국 배경 로봇의 사랑 이야기  
"보편적 주제 관객마음 건드려"

한국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8일(현지시간) 열린 '제78회 토니상 시상식'에서 최고 영예인 작품상(Best Musical)을 포함해 연출상, 극본상, 작사·작곡상 등 6관왕에 올랐다.

근미래 한국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은 사람을 돕기 위해 제작된 로봇 올리버와 클레어가 사랑에 빠지며 벌어지는 일을 그린다. 두 로봇이 올리버의 주인을 찾아 제주도를 여행하는 동안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는 과정이 주를 이룬다.

로봇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등 공상과학(SF) 장르의 형식을 따르면서도 사랑이라는 주제를 섬세하게 풀어낸 것



이 특징이다. 상대방의 작은 몸짓과 표정을 서로를 향한 사랑을 깨닫는 순간을 표현한 넘버 '사랑이란'이 대표곡으로 꼽힌다.

'반지점프를 하다', '일 테노레' 등의 작품을 합작한 월 애런슨 작곡가와 박천후 작사가 창작진이다. 두 사람은 대학교 시절부터 친구로 지내며 함께 창작 활동을 이어와 국내 뮤지컬 팬 사이에서는 '윙윙' 콤비로 불린다.

작품은 우란문화재단 창작지원 사업을 통해 2015년 시범공연을 했고, 2016년 대학로 소극장에서 초연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총 다섯 시즌을 마쳤으며 2018년 한국뮤지컬어워즈 '소극장 뮤지컬상' 등 6개 부문을 받아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작품은 미국 관객들에게 낯선 공간인 한국을 배경으로 했지만, 주제를 풀어내는 방식이 관객의 공감을 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승연 뮤지컬평론가는 "과학 시간에 접하는 친숙한 소재인 실 전자기처럼 관객이 익숙하고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소재를 작품 곳곳에 잘 배치했다"며 "보편적 요소의 공감할 수 있는 주제가 관객의 마음을 건드려 큰 반응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다경 기자 alsqslsdl94@gwangnam.co.kr

# 2025

# 콘텐츠산업포럼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광남일보 창사 70주년

2025. 6. 18<sup>WED</sup>

– 6. 20<sup>FRI</sup>

CKL 스테이지